

위대한 백두령장을 높이 모시고 선군의 위력으로 공화국정권을 반석같이 다져나가자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결의대회 진행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공개서한을 끝없는 감격속에 받아안은 전체 인민군장병들은 최고사령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조국의 하늘과 땅, 바다초소마다에 백두의 선군령장을 혁명의 전투에 높이 모시고 불패의 군력으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백승의 역사를 빛내여갈 천만장병들의 불타는 열의가 차넘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전국의 모든 선거자

들에게 공개서한을 보내주신 크나큰 믿음에 충정으로 보답하기 위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 선거자결의대회가 20일 4.25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대회장은 인민군대를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최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 내세워주시고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시키시어 사회주의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굳건히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에 대한 열화같은 호모심으로 똘똘 뭉쳐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항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시는 불패의 혁명주권 만세!》라는 구호들이 나붙어있었다.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와 인민무력부 일군들, 조선인민군 장병들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대회는 《우리는 당선박에 모른다》, 노래주악으로 시작되었다.

대회에서는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보내신 공개서한

을 리영길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이 전달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 대한원후보자로 등록하기로 하신 공개서한을 받아안은 전체 참가자들은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터쳐 올려였다.

대회장에 불세출의 선군령장을 끝없이 신뢰하고 따르는 천만장병들의 뜨거운 충성이 끓어넘치는 가운데 결의토론들이 있었다.

세우려는것은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군대인 우리 인민군대가 백두의 위업,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맨 앞장에서 총적하게 받들며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무적의 군력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 장령 박영식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새로운 주제100년대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력사적인 선거에서 인민군대 최고사령관동지께 총정의 표를 드리게 된것은 크나큰 긍지이며 행복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 대한원후보자로 등록하여주시는것은 인민군장병들이 받아안은 최상의 특전이며 최대의 영광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계기로 펼쳐진 혼연일체의 승고한 화폭은 위대한 일심단결로 온갖 도전과 난관을 이겨내며 백승만을 펼쳐가는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같이 진행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 따라 우리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이 땅위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보란듯이 일떠

세우려는것은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군대인 우리 인민군대가 백두의 위업,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맨 앞장에서 총적하게 받들며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무적의 군력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 장령 박영식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새로운 주제100년대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력사적인 선거에서 인민군대 최고사령관동지께 총정의 표를 드리게 된것은 크나큰 긍지이며 행복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 대한원후보자로 등록하여주시는것은 인민군장병들이 받아안은 최상의 특전이며 최대의 영광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계기로 펼쳐진 혼연일체의 승고한 화폭은 위대한 일심단결로 온갖 도전과 난관을 이겨내며 백승만을 펼쳐가는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같이 진행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 따라 우리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이 땅위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보란듯이 일떠



세우려는것은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군대인 우리 인민군대가 백두의 위업,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맨 앞장에서 총적하게 받들며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무적의 군력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 장령 박영식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새로운 주제100년대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력사적인 선거에서 인민군대 최고사령관동지께 총정의 표를 드리게 된것은 크나큰 긍지이며 행복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 대한원후보자로 등록하여주시는것은 인민군장병들이 받아안은 최상의 특전이며 최대의 영광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계기로 펼쳐진 혼연일체의 승고한 화폭은 위대한 일심단결로 온갖 도전과 난관을 이겨내며 백승만을 펼쳐가는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같이 진행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 따라 우리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이 땅위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보란듯이 일떠

세우려는것은 천만군민의 확고부동한 신념이고 의지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군대인 우리 인민군대가 백두의 위업,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맨 앞장에서 총적하게 받들며 사회주의강성국가 건설의 최후승리를 무적의 군력으로 튼튼히 담보해나갈데 대하여 그는 강조하였다.

조선인민군 장령 박영식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새로운 주제100년대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력사적인 선거에서 인민군대 최고사령관동지께 총정의 표를 드리게 된것은 크나큰 긍지이며 행복이라고 말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 대한원후보자로 등록하여주시는것은 인민군장병들이 받아안은 최상의 특전이며 최대의 영광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계기로 펼쳐진 혼연일체의 승고한 화폭은 위대한 일심단결로 온갖 도전과 난관을 이겨내며 백승만을 펼쳐가는 백두산대국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더불어 같이 진행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 따라 우리 사회주의를 빛내이며 이 땅위에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을 보란듯이 일떠

사회주의 내 나라를 천하제일강국, 인민의 락원으로 일떠세우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보내신 공개서한에 접한 각계의 반향

당의 농업정책관철의 위력한 승풍기가 되겠다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보내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공개서한을 받아안은 우리 황해남도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한 기쁨과 행복에 넘쳐있는 우리들에게 한평생의 사랑과 믿음을 담아 공개서한까지 보내주시였으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어디 있었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과 인민대중, 령도자와 천만군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뭉치고 뜨거워져서 철연의 결의로 이어진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소이다.》

같은 인민을 믿고 인민을 당을 믿어 신뢰하고 따르는 당과 인민의 혼연일체는 우리

공화국의 무한한 힘의 근본원천이다.

도당위원회에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운명도 미래도 전적으로 의탁하고 원수님의 사상과 령도를 한마음한뜻으로 충직하게 받들어가려는 도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억척불변의 신념과 의지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계기로 남김없이 파시되도록 조직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 들었다.

령도자의 사상과 의도를 받들어어나가는데서 말보다 실천이 중요하다는것을 명심하고 도안의 각급 당조직들에서 대중을 대고 조직적으로 추동하는 사상교양사업들을 기동적으로 진행해나가고도 하였다.

올해에 경제건설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농업을 주타격방향으로 확고히 틀어쥐고 농사에 모든 힘을 총집중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승고한 뜻대로 농업생산의 직접적담당자인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에 불을 달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도 하였다.

도안의 시, 군당조직들과 협동농장당조직들이 인민들의 식량문제해결을 위하여 고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험한 포전길을 걷고걸은 위대한 이 당의 농업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과감한 실천력을 발휘하도록 적극 추동하였다.

각급 당조직들과 근로단체조직들이 농촌지역과 관련한 사상교양사업들을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활발히 벌리도록 함으로써 온 도에 농촌지역의 열풍이 세계에 휘몰아치게 하였다.

그러하여 당의 농업정책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대중을 힘있게 떠밀어주는 위력한 승풍기가 되겠다.

황해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영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보내주신 공개서한을 받아안은 우리 황해남도인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금 크나큰 격정에 휩싸여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청년들은 당을 따라 곧바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충진군대요의 척후대입니다.》

선군조선의 존엄과 위용을 세계만방에 떨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신 크나큰 인민적공정과 환희가 온 나라에 차넘치는 이 시각 우리 청년전위들의 가슴마다에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어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앞길에

당을 따라 언제나 곧바로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며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이리라 하는 믿음의 신심과 락관이 더욱 깊이 새겨지고있다.

우리 청년들은 신지 체합을 통하여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령도력, 고매한 품모를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따르는 길에 선군조선의 찬란한 미래가 있고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위업의 승리가 있으며 조선청년운동의 보다 위대한 앞날이 있다는것을 심장으로 절감하였다.

승고한 후대관, 미래관을 지니고 우리에 대한 대원수님들의 청년중시사상과 업적을 빛내여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품은 우리 청년들이 운명도 미래도 영원히 맡기고 안겨갈 위대한 태양의 품이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에서는 청년동맹에서 당과 수령의 위대성교양을 더욱 심화시켜 모든 청년들이 우리 혁명의 전세대를처럼 수령결사옹위의 길을 따르는 삶을 빛내여나가고도 하였다.

뿐만아니라 각급 청년동맹조직들에서 청년동맹이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제주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시있게 벌려나가고도 함으로써 온 나라 청년들모두가 고마운 사회주의 내 조국을 위해 일터마다에서 새로운 기적과 위훈을 창조하는 청년영웅이 되게 하였다.

우리는 청년들의 힘찬 발걸음을 의해 강성레일은 더욱 앞당겨질것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을 언제나 심장에

새기고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 건설과 북부철길개건보수공사 사업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어렵고 힘든 전투장들마다에서 최고사령관의 예비전투부대, 별다른 어려움 없이 당을 따르는 로써 우리 혁명주권을 반석같이 다져내는적극 이바지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선군조선의 새로운 번영기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온 나라 전체 청년동맹일군들과 청년들의 다함없는 신뢰심을 뚜렷이 보여주고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일심단결의 위력과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온 세상에 힘있게 과시하였다.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전 용 남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더욱 높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보내주신 공개서한을 받아안은 우리 백두산혁명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전당, 전국, 전민이 떨쳐나 사회주의조국의 강성변명을 위한 영웅적투쟁을 다그쳐나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위한 제111호 백두산선거구에 대한원후보자로 등록하기로 하신 소식에 접하였으니 어찌 그렇지 않겠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 당, 대중의 일심단결은 우리의 가장 자랑이며 모든 승리의 결정적담보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신 공개서한에서 당과 인민대중, 령도자와 천만군민이 하나의 사상과 뜻으로 뭉치고 뜨거워져서 철연의 결의로 이어진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당할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하시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최고인민회의에 높이 모시고 당의 령도대로 백두의 기상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앞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열어주시신 승리와 영광의 길만이 있을뿐이다.

하기에 우리 백두산혁명 선구자들은 이번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에 한사람같이 참가하여 총정의 한표, 애국의 한표를 바침으로써 오직 백두산처럼 억세고 변함없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만을 높이 받들 드높은 결의로 충만되어왔다.

결들은 우리 나라에 대한 압력과 경제제재를 강화하면서 일심단결을 허물어보려고 책동하고있다. 하지만 농사를 잘 지어 인민들의 식량문제, 먹는 문제가 보다 원만히 해결되면 적들이 아무리 책동하여도 우리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혁명과 건설투쟁을 더 힘있게 벌려나갈 수 있다.

이로부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농업전진을 사회주의수호전의 전초선으로, 경제

강국건설에서 힘을 집중하여야 할 주타격방향으로 경제주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백두산혁명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는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을 더 세차게 지펴올리는것으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며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해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어찌가 무겁다. 하지만 두리울것은 없다.

우리 대중단군은 이미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감자농사의 종합적기계화가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뿐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장군님께서 품소 창조해주신 감자농사의 만능의 열쇠인 대용산식파농법도 있다.

우리는 종자, 물거름, 정성 이 세가지를 틀어쥐고 감자농사를 지어 뜻깊은 올해 또다시 최고수확년도수준을 돌파하였다.

그러하여 백두산혁명에 감자농사혁명의 불길이 더 세차게 타오르게 하는것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다시 한번 힘있게 시위하였다.

대동단군농업경영위원회 위원장 김 광 호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보내주신 공개서한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들이 세상만물을 누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 나신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맥떡히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열어주시신 승리의 넓은 길이 펼쳐져있으며 인민정권은 강성국가건설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오는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현대정치가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한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위인상을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전국의 모든 선거구 선거자들에게서 모든 선거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일원단심 높이 모시고 원수님의 사상과

인민의 복무자 된 공지안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보내주신 공개서한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들이 세상만물을 누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 나신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맥떡히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열어주시신 승리의 넓은 길이 펼쳐져있으며 인민정권은 강성국가건설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오는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현대정치가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한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위인상을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전국의 모든 선거구 선거자들에게서 모든 선거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일원단심 높이 모시고 원수님의 사상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보내주신 공개서한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들이 세상만물을 누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 나신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맥떡히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열어주시신 승리의 넓은 길이 펼쳐져있으며 인민정권은 강성국가건설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오는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현대정치가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한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위인상을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전국의 모든 선거구 선거자들에게서 모든 선거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일원단심 높이 모시고 원수님의 사상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국의 모든 선거자들에게 보내주신 공개서한을 받아안은 우리 인민들이 세상만물을 누리며 남부럽지 않게 살 나신 우리 군대와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믿음이 맥떡히 흐르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확신성있게 전진하는 우리 인민앞에는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열어주시신 승리의 넓은 길이 펼쳐져있으며 인민정권은 강성국가건설의 강력한 정치적 무기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고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오는 나날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현대정치가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체현한 불세출의 선군령장의 위인상을 심장깊이 절감하였다. 전국의 모든 선거구 선거자들에게서 모든 선거자들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대의원후보자로 높이 추대한다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일원단심 높이 모시고 원수님의 사상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보내주신 공개서한을 무한한 격정속에 받아안은 평양326선선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 본사기자 림 학 락 찍음

전체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
공화국의 모든 남녀공민들!
오는 3월 9일은 공화국의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
거의 날이다.

전체 조선인민에게 보내는 호소문

위대한 당의 탁월한 영도 밑에
선군조선의 일대 번영기가 장엄하
게 펼쳐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며 미래이신
경제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최
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높이
추대하는 크나큰 영광과 기쁨, 민족적
공지와 행복으로 하여 끝없는 감격
과 환희에 휩싸여있다.

라는 절대불변의 신념과 철의 진리
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공화국정권
이 있음으로 하여 자주적인민의 존
엄과 후손대대의 행복이 담보되고
있다는것을 굳게 확신하고있다.

지금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
들은 강철의 명장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경제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높이
추대하는 크나큰 영광과 기쁨, 민족적
공지와 행복으로 하여 끝없는 감격
과 환희에 휩싸여있다.

전체 로동자, 농민, 지식인들!
공화국의 모든 남녀공민들!
최고인민회의의 제13기 대의원선
거를 높이 추대하는 크나큰 영광과
기쁨, 민족적 공지와 행복으로 하여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휩싸여있다.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
적시기에 실시하게 되는 최고인민
회의의 제13기 대의원선거는 참다운
인민의 국가를 건설하고 사회주의
정치군사강국으로 빛내여주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현재만세 빛내
이며 경제하는 김정은동지의 영도
따라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취물인
인민정권을 더욱 강화하고 사회주의
강성국가건설을 앞당겨나가는데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정치
적사건으로 된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경제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다함없는 호호와 열렬한 충성
정, 평등자와 인민이 한피줄로 이어
진 일심단결의 공고성과 우리 식 사
회주의제도의 불패성을 더욱 힘있게
펼치게 될것이다.

전체 조선인민의 총의에 의하여
세워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독창적인 국가
건설사상과 영도업적으로 빛을 뿌
리는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이며 우리
인민의 자주적존엄과 민족대
의 번영을 담보하는 강위력한 무기
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경제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다함없는 호호와 열렬한 충성
정, 평등자와 인민이 한피줄로 이어
진 일심단결의 공고성과 우리 식 사
회주의제도의 불패성을 더욱 힘있게
펼치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경제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다함없는 호호와 열렬한 충성
정, 평등자와 인민이 한피줄로 이어
진 일심단결의 공고성과 우리 식 사
회주의제도의 불패성을 더욱 힘있게
펼치게 될것이다.

우리는 이번 선거를 통하여
경제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 다함없는 호호와 열렬한 충성
정, 평등자와 인민이 한피줄로 이어
진 일심단결의 공고성과 우리 식 사
회주의제도의 불패성을 더욱 힘있게
펼치게 될것이다.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회의 진행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회의가 20일 평양에서 진행되었다.
회의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이끄
시는 불패의 혁명주권 만세!》,
《위대한 평등자 김정은동지의 두리
에 일심단결하여 조국을 통일하
자!》라는 구호판들이 회의장에 세
워져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기남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인민
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윤정호 선동
교청우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조국
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의장
들, 위원들, 판계부서 일꾼들이 회의
에 참가하였다.

회의에서는 김한수 조국통일민주
주의전선 중앙위원회의장 겸 서기
국 장성이 개회사를 하였다.

그는 나라 천만군민이 경제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체 선전자들에게
보내신 공개서한을 받아안고 강성
국가건설에서 비약과 혁신의 불바람
을 세계에 일으켜나가고있는 격동적
인 시기에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
앙위원회 회의를 가지게 된다고 말
하였다.

경제하는 현수님을 최고인민회의
의 제13기 대의원선거를 높이 추대하
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뿌리내린 자기 평등자에 대한 절대
적인 지지와 신뢰, 열화같은 충정의
발현이며 그 어떤 천지풍파가 닥쳐
와도 원수님을 단결과 평등의
유일 중심으로 높이 모시고 끝까지 따
를 천만군민의 철석같은 의지의 표
시로 된다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주체혁명위업계승의 중대한 력사
적시기에 경제하는 김정은동지를 높
이 추대하는 것은 민족적 존엄과 평
등을 지키고 사회주의의대
평등자와 인민이 한피줄로 이어진 일
심단결의 공고성, 우리 식 사회주의
의 유일성과 불패성을 과시하며 인
민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현재만세 빛내여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와 자
주, 선군, 사회주의기치들이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가는 공화국
의 위력을 만방에 떨치는 일대 정치
적사건으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선전자들이 경제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미래이
시라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높
이 추대하는 것은 민족적 존엄과 평
등을 지키고 사회주의의대
평등자와 인민이 한피줄로 이어진 일
심단결의 공고성, 우리 식 사회주의
의 유일성과 불패성을 과시하며 인
민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현재만세 빛내여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와 자
주, 선군, 사회주의기치들이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가는 공화국
의 위력을 만방에 떨치는 일대 정치
적사건으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
을 위한 길에 불멸의 업적을 이룩
하신 어머니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과 애도의 정을 안고 각지 당
조직들에서는 대중운동의 불길을 세
차게 지펴올려 훌륭한 성과를 이룩
하고있다.

평명성정을 맞으며 북창은하피복
공장과 문천탄광 승려승 군중대대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2중3대혁명
수행운동에 앞장서고있다.

3대혁명불은기를 쥘취하였다.
모든 전진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
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당조직들은 대중주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나가는데 모를 막고
3대혁명불은기 쥘취운동을 신속이
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 세목의 불
은기가 쥘취운동에 더욱 힘차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불
은기 쥘취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
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현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결의표현을 현실성있게
이행시키실것을 기대하고있다.

단결평명건설협약기치 쥘취운동
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있다.

단결평명건설협약기치 쥘취운동
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있다.

단결평명건설협약기치 쥘취운동
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있다.

3대혁명불은기 쥘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각지 당 조직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현재만세 빛내여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와 자
주, 선군, 사회주의기치들이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가는 공화국
의 위력을 만방에 떨치는 일대 정치
적사건으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선전자들이 경제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미래이
시라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높
이 추대하는 것은 민족적 존엄과 평
등을 지키고 사회주의의대
평등자와 인민이 한피줄로 이어진 일
심단결의 공고성, 우리 식 사회주의
의 유일성과 불패성을 과시하며 인
민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현재만세 빛내여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와 자
주, 선군, 사회주의기치들이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가는 공화국
의 위력을 만방에 떨치는 일대 정치
적사건으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들

평양역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모셔져있었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위대한 평등자 김정은동지
만세!》 등의 구호판들이 역구내에
나붙어있었다.

《조선로동당 제8차 사상일군대회
참가자를 열렬히 환영합니다!》라
고 쓴 구호판이 세워져있는 역구내
는 대회참가자들을 맞이하는 환영
기차로 열리고있다.

한양구역 역에서 출발한 참가자들
들은 태운 열차들이 역에 들어섰다.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도춘동
지, 김명애동지, 박범기동지와 판계
부서 일꾼들이 대회참가자들을 뜨겁
게 맞이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의 가슴머리는 우리
당사상사업에서 획기적인 전진의 계
기 조로써 격렬히 력사적인 대회를
마련해주신 경제하는 김정은현수님
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와 신뢰의 정
으로 끓어번지고있다.

당사상사업에서 당원들과 근로자
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
옹위전에 힘있게 불려오시킴은 대
회참가자들을 향해 수도시민들이 손
을 흔들며 열렬히 환영하였다.

전체 대회참가자들은 이번 대회를
통하여 경제하는 김정은동지를
유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
의 정치사상적 통일단결을 백방으로
다지고 사상의 위력으로 강성
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이룩해나
가는데 이바지할 불타는 열에
넘쳐있었다.

평명성정을 맞으며 북창은하피복
공장과 문천탄광 승려승 군중대대
비롯한 많은 단위들이 2중3대혁명
수행운동에 앞장서고있다.

3대혁명불은기를 쥘취하였다.
모든 전진에서 새로운 비약의 불바
람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한 투쟁에
펼쳐나선 천만군민의 앙양된 열의를
더욱 북돋아주고있다.

위대한 평등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셨다.

《당조직들은 대중주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나가는데 모를 막고
3대혁명불은기 쥘취운동을 신속이
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기치, 세목의 불
은기가 쥘취운동에 더욱 힘차게
나타나도록 하여야 합니다.》

각지 당조직들에서는 3대혁명불
은기 쥘취운동을 힘있게 벌릴데 대
한 대원수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현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결의표현을 현실성있게
이행시키실것을 기대하고있다.

단결평명건설협약기치 쥘취운동
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있다.

단결평명건설협약기치 쥘취운동
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있다.

단결평명건설협약기치 쥘취운동
을 위한 투쟁에 앞장서고있다.

3대혁명불은기 쥘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각지 당 조직들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현재만세 빛내여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와 자
주, 선군, 사회주의기치들이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가는 공화국
의 위력을 만방에 떨치는 일대 정치
적사건으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선전자들이 경제하는
김정은동지는 우리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며 조국통일의 찬란한 미래이
시라는 철석의 신념을 지니고 이번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를 높
이 추대하는 것은 민족적 존엄과 평
등을 지키고 사회주의의대
평등자와 인민이 한피줄로 이어진 일
심단결의 공고성, 우리 식 사회주의
의 유일성과 불패성을 과시하며 인
민정권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건국업적을 현재만세 빛내여나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혁명적의지와 자
주, 선군, 사회주의기치들이 창조와
건설의 대번영기를 펼쳐가는 공화국
의 위력을 만방에 떨치는 일대 정치
적사건으로 될것이라고 말하였다.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적업적을 단
순의 구체적인 현
실과 결부하여 해결하였다.

그는 불패의 위력을 떨치며 강성국
가의 높은 평야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현실이 바로
어머니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업적의
위대성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된다고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지금 탄광의 당원들과 탄부들은 더
높은 선관생산성과로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
수호하고 길이 빛내여나갈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로동농민련 연 전 행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혁명적업적을 단
순의 구체적인 현
실과 결부하여 해결하였다.

그는 불패의 위력을 떨치며 강성국
가의 높은 평야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회주의 내 조국의 현실이 바로
어머니장군님의 선군혁명영도업적의
위대성에 대한 뚜렷한 증거로 된다고
격정에 넘쳐 이야기하였다.

지금 탄광의 당원들과 탄부들은 더
높은 선관생산성과로 우리 당의
선군혁명사상과 업적을 견결히 옹호고
수호하고 길이 빛내여나갈 열의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로동농민련 연 전 행

주체혁명의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김일성-김정일주의교양사업을 심화시키자

학습과 실천을 밀접히 결합시켜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당위원회 사업에서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김일성-김정일주의교양사업을 실천투쟁과 밀접히 결합하여 진행하고 있다.

경에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의 김일성주의화, 당의 최고강령으로 내세우고 즐기게 투쟁하여야 할 것임은 의심이 없이 사회를 위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실천하기 위하여 힘써야 합니다.»

연합기업소 당위원회에서는 우선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노동자들이 우리 당의 지도사상인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심화강화해 주도록 하였다. 당위원회일군들부터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자신들을 튼튼히 무장하기 위한 사업을 철저히 진행하여 성과를 거두었다. 대중의 사상을 발동하여 할 당당자신 당원들의 정치사상수준을 높여야 사상교양사업의 실효를 높일 수 있다. 이것을 명심한 당위원회일군들은 엄격한 김일성-김정일주의로 준비해나가는 사업의 첫 단계인 학습실천을 중시하였다. 이 단계를 우선한 사실만 보아도 잘 알 수 있다.

문답식학습경연이 실천에 써먹을 수 있는 산지식을 터득하는 과정으로 되게 하기 위해 당위원회에서는 모든 일군들이 경연하는 원수님의 출생년사와 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작품들을 자자구구 새겨가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자신의 뼈와 살로 만드는 큰 힘을 넣도록 하였다. 당위원회일군들은 학습을 시작하기 전부터 학습전투의 앞장에 섰다. 경연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에 정한 즉시 그 사상과 진수를 깊이 새긴 그는 당위원회일군들을 발동하여 체계와 내용을 담은 결구문을 만들게 하였다.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 우리 자신을 튼튼히 준비하기 위해 당위원회일군들은 학습을 심화시켰다. 토론과 론쟁, 부시별 문답식학습경연을 통하여 학습한 내용을 공고히 하고 완전히 자기것으로 만들었다. 결과 총국적으로 진행된 문답식학습경연에서 이곳 당위원회일군들은 단연 1등의 영예를 지닐 수 있었다. 당위원회는 당원들뿐 아니라 행정, 근로단체일군들도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 학습을 잘하도록 이끌었다. 그리하여 원이 총국적으로 진행된 문답식학습경연에서 근로단체일군들이 1등의 영예를 지닐것을 비롯하여 행정일군들도 학습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이렇듯 연합기업소의 당, 행정,

근로단체일군들부터 모범을 보이니 아래단위 일군들과 노동자들속에서도 김일성-김정일주의로 무장하기 위한 학습열풍이 세차게 일어났다. 그것이 좋은 결실을 안아오고있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는 다음으로 실천투쟁을 통하여 김일성-김정일주의교양의 실효가 뚜렷이 나타나게 하고있다. 공무분공장을 사상교양사업을 잘하는 전형단위로 내세우고 혁신을 창조하게 한 사실이 좋은 실례로 된다. 당위원회일군들이 이 단위에서 사상적인 불결을 더 세차게 지퍼올리려고 결심하고 있다.

어느날 연합기업소의 전반적인 생산공정을 돌아본 당위원회는 한 일군은 공무분공장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의 사상을 발동하기 위한 사업을 더 잘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금플광산의 광부들속에서, 4.5정년전직장의 노동자들속에서 생산전창과 관련하여 결리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 결리와 부속품을 미리 확보하는것이 생산과 관련하여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김덕광과 더불어 불멸할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행하는 일군들의 사상교양사업의 실효는 대단히 컸다. 이에 고무된 공장의

바람을 일으키는데서 당위원회가 중시한것이 바로 김일성-김정일주의교양사업이었다.

혁명과업수행과 결부되지 않은 순수 사상교양사업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당위원회일군들은 부속품생산에 필요한 공구들을 해결해주시기도 하면서 교양사업을 능숙하게 진행하였다. 당위원회일군들은 들끓는 현장에 나갔다. 기름물은 손으로 기대고들과 함께 선반을 돌리기도 하고 실참에는 무릎을 마주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일군들은 대중의 준비정도와 특성에 맞게 김일성-김정일주의교양을 진행하였다. 누구나 참된 김일성-김정일주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행복을 위해 한평생을 바친 위대한 대원수님의 뜻을 실현해나가는 내용으로 사상교양사업을 진행하였다.

선전선동부일군들은 방송선 전차활동과 기동예술선대활동 등을 활기있게 진행하였다.

신앙문, 남진운동부들 비롯한 일군들은 학습과 강연 그리고 출판물을 통하여 우리 당의 주체사상, 선군사상을 새겨주기 위한 교양사업을 심화시키고있다. 김덕광과 더불어 불멸할 절세위인들의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진행하는 일군들의 사상교양사업의 실효는 대단히 컸다. 이에 고무된 공장의

당원들과 노동자들은 한결같이 떨쳐나 수많은 부속품을 자체로 생산하여 보름동안에 생산계획을 150% 넘쳐 수행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연합기업소당위원회는 이룩된 성과와 경험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어 금플광산과 4.5정년전직장을 비롯한 단위들에서도 김일성-김정일주의교양을 단위의 구체적실정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였다. 금플광산 초급당비서 김성철, 4.5정년전직장 초급당비서 박승희동무를 비롯한 일군들의 역할이 높았다. 그들은 광장장과 전투장들에 나가 실천과 결부하여 해설담화를 비롯한 다양한 형식과 방법으로 김일성-김정일주의교양을 진행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사상전, 선전선동의 뒷바라지가 빠른 속도에 전투장들이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대중의 정신력이 쇠로 발동되어 가는 곳마다에서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었다.

4.5정년전직장파괴소대와 영광 광대선영웅소대를 비롯한 여러 단위들이 보름이상이나 앞당겨 생산계획을 수행한것을 비롯하여 이룩된 성과는 실로 컸다.

학습과 실천투쟁을 결합시키며 진행한 사상교양사업의 실효는 이렇듯 눈부신 것이다.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로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정신은 김일성-김정일주의의 사상정신특성에서 근본핵을 이룬다. 최근 평양컴퓨터기술대학 초급당위원회에서는 교직원, 학생들을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지닌 전위투사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잘하여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의 수뇌부결사옹위는 혁명에 대한 충실성의 핵심이고 최대의 애국애민이다.»

그러면 이곳 초급당위원회가 교직원, 학생들을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전위투사들로 키우는 사업에서 중시한 점은 무엇인가.

우리 혁명의 자랑찬 년대 마다에서 수령결사옹위의 값있는 삶을 빛낸 혁명의 전대들을 따라배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활발히 벌리는것과 함께 자기 단위에서 발휘된 긍정적소행들을 통한 교양사업을 적극 벌려나간것이다.

박철호동무가 대학의 초급당비서로 새로 임명되어와서 일을 갖

평양컴퓨터기술대학 초급당위원회에서

시작했던 지난해 9월의 일이다. 격동적인 현실의 요구에 맞게 교직원, 학생들에 대한 사상교양사업을 심도있게 진행하기 위한 사업을 무리없이 추진한것은 문대 컴퓨터학원의 연혁소개관에서 본 후학생의 사정이 떠올랐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라는 글발과 함께 나붙어있던 조일진, 천일남 학생들의 사진이었다.

뜻밖의 화재로 불길에 활활 타래치는 살림집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뛰어들어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초상화를 안전하게 모셔내는 기록한 학생들이었다. 성격과 나이는 서로 달랐어도 하나같이 발휘된 긍정적소행은 누구에게나 삶의 진가를 많이 깨쳐주고있었다.

초급당일군은 대학의 자랑으로 되는 이런 긍정적소행들을 가지고 교양사업을 잘하면 교직원, 학생들에게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깊이 심어주는데서 큰 효과를 볼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한정준, 김명준동무들을 비롯한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조일진, 천일남학생들의 소행은 물론 교직원, 학생들속에서 발견되는 투철한 수령결사옹위정신을 말해 주는 소행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장려하여 그것을 통한 교양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갔다.

컴퓨터학원 생활환경과 교원 김이영동무에게서 좋은 소행이 발휘되었을 때의 일을 놓고보자. 지난해 9월 평화광장전 65층

경축행사모장을 위한 혼편에 중추하던 그는 몸이 불편하여 당일행사에 참가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있었다. 그러나 그는 «김정은, 김일성»의 합성을 우회처럼 터쳐쳐는 일심의 대우에 단 하나의 빈자리도 있어서는 안된다는 각오를 가지고 모친 동물을 이겨내면서 끝내 행사를 성과적으로 보강하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는 원장 김광호, 명예보서 김은주동무들과의 련계밑에 그의 소행을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 널리 내세워주시고 교직원, 학생들이 적극 따라배우도록 하였다.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이 대학의 현실에 발을 붙이고 진행한 긍정적소행들을 통한 교양사업은 교직원, 학생들에게 수령결사옹위정신을 결코 총모란이 우뚝치는 곳처럼 만 아니라 남침적인 사업과 생활속에서 남침적이 발휘되어야 한다는 철리를 굳게 새겨주었다.

은 대학에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꼭 차넣지는 가운데 대학의 교육과 학사사업과 학생들의 학과실력에서는 눈에 띄는 전진이 이루어졌다. 그 나날 컴퓨터학원은 영예의 붉은기학교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다.

자기 단위에서 발휘된 긍정적소행들을 통하여 교직원, 학생들을 수령결사옹위의 전위투사들로 역세게 키워나가고있는 이곳 대학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사업은 평가할만 하다.

본사기자 최영길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인발광관직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인발광관직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종업원들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심어주기 위한 사업을 철저히 해나가고있다. 주목되는것은 실천과정을 역척본들의 신념을 새겨주는 과정으로 되게 하고있는것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도록 교양하여야 합니다.»

직장에서 새로운 소재질단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고있던 어느날이었다. 지난해부터 해오는 이 연구가 성공하면 나라에 막대한 리득을 주는것은 물론 생산에서도 큰 성과를 거둘수 있었다. 이 날 직장에서 새해에 들어와 벌써 다섯번째로 시험을 하고있다. 한호 또 한호...

그러나 시험은 또다시 실패하였다. 사람들의 얼굴에 락신의 빛이 려려져 어리었다. 지난해부터 계산한 어느덧 서른다섯번째로 되는 실패였으니 그럴만도 하였다. 안락 가을에 가슴이 옥죄어오는 수에서도 초급당비서 김성남동무는 강장을 먹고있었다.

(주지않아서는 안된다. 사회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이 자력강생, 강고분투의 위력한 힘으로 분출되게 하자!)

그는 사람들을 둘러보며 이야



통나무생 산자들속에 깊이 들어가 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 그들을 위훈애로 불러일으키고있다.

우리 선동원으로 불리우며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제7작업반 2분조 선동원 황성옥동무

평원군 원화협동농장 제7작업반 2분조 선동원 황성옥동무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명에동장으로서 높이 모신 영광의 땅에서 당초주체사상전일군으로 일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언제나 대중의 앞장에서 능장원들을 이끌어 나가고있다.

그는 일을 짐작스럽게 하여 농장적으로 제일 많은 로력공수를

계급적자각을 높여준 교양방법

은천군 량양농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혁명투쟁이 벌어지는 시대적 환경도 달라지고 혁명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이 사회의 주력을 이루고있는 오늘날 계급교양사업을 좋은 방법으로 가지고 실효성있게 벌려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르고있다. 은천군 량양농장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미제와 계급적원수들의 야수적탄압을 당한 피살자들의 후대들을 찾아 계급교양사업에 적극 인입하여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계급의식을 더욱 높여 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사상교양사업은 하나를 하여도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도록 실속있게 하여야 합니다.»

올해 1월 초급당비서 김중은동무는 제12작업반에서 진행되는 계급교양해설모임에 참가한적이 있었다. 재강을 잃어가는 당초주체사상전일군의 해설이 작업반원들에게 준 감흥은 컸으나 초급당일군은 실효를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출연자도 작업반원들도 전쟁의 시련을 겪어보지 못한 세대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며 소홀히 할수 없는 문제였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절대로 변할수 없는것이 바로 우리

부속자들의 파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의 머리에 는 이곳에 당일군으로 임명되어 오던 날 제9작업반 당세포비서였던 립장총동무가 하던 말이 떠올랐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의 전란적인 일시적폭발시기 미제침략자들은 계급적원수들을 규합하여 량양당에서만 하여도 150여 명의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을 무참히 학살하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도 애국농민이라는 것이 아닌 피로 바쳐야 할 공명품이 체 총살당하였으며 바다물에 수장되었다고,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이가 갈린다고 울분을 토 하였다. 원수들의 만행자료를 가지고 연구자를 내세워 진행하는 계급교양사업이 사람들에게 주는 어원이 비합리미에 클것이라고 생각한 초급당일군은 립장총동무의 집으로 발걸음을 다투었다. 그를 만나면 원수놈들의 귀족같은 만행자료를 한가지라도 더 수집할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였다. 좋은 판단이었다.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이 애국자들과 무고한 인민들의 원한이 서린 교양방법을 참담하게 사랑하고 원수놈에게 무자비한 징벌을 내리게 하자면 계급교양사업을 보다 실속있게 진행해야 하였는데 방조가 필요해서 왔다 고 초급당일군이 말하자 그는 제격 응하였다.

그는 부모들과 관련한 많은 동무를 비롯한 중앙정보보안국 일군들과 8분군인의 청년동맹원들의 소행에 대하여 진술했었다.

구성시 신흥2동에서 사는 방영일동무는 여러해동안 영예군인인 자기 아들을 위해 온갖 상의를 다하였을 신흥1동에서 사는 박윤정, 김숙근동무들을 소개해줄것을 부탁하였다.

자료들을 내놓았다. 그후 초급당일군은 해당 기관과의 련한 련계밑에 최후의 순간까지 혁명적지조를 굽히지 않고 싸운 애국적자각과 인민들의 투쟁자료를 더 수집하였다.

초급당일군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농장의 직관들과 함께 밤을 새우며 최후의 순간까지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를 소리높이 부르며 원수놈들과 굴함없이 싸운 애국자들과 인민들의 투쟁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료를 여러 개 준비하였다.

며칠후 애국렬사가 바라보이는 제3작업반 포전에서 계급교양해설모임이 진행되었다. 애국자들의 땀을 대변하여 원수놈들의 죄행을 날날이 발가벗는 립장총동무의 서리발같은 목소리는 작업반원들의 가슴마다에 원수적의 불을 달아주었다.

그날의 계급교양해설모임은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에게 량양당에 새겨진 피의 흔적을 제대로 잊지 않고 우리 식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할 역척본의 신념을 새겨주었다.

이날 작업반원들은 너도나도 떨쳐나서 기쁨생산에서 최고의 실적을 냈다.

자기 교정의 피살자들의 후대들을 내세워 진행한 계급교양해설사업의 실효는 컸다.

본사기자 손영희

의 밝은 얼굴을 대할 때마다 모두가 서로 들고 이끌며 화목하게 사는 교묘한 사회주의제도에 대한 긍지와 자랑으로 눈금이 젖어들고 있었다.

량양구역 관문2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리성호동무는 자기기를 위해 친혈육의 정을 부어주고있는 평양안파병원의 사 리훈동무와 구익인민위원 김학제 동무, 동사주소 일군인 강금선동무의 소행에 대하여 진하여왔다.

이밖에도 통일구역 명오동에 사는 류정훈, 홍정중 영예군인부부는 자기들의 건강과 생활을 꾸미기 위하여 불타고있는 김철웅동무를 비롯한 구역인민위원 회일군들의 소행에 대하여, 순천시 강안동에서 사는 영예군인 리홍삼동무는 순천시인민보안시 일군인 윤성민동무의 소행을 전해준것을 비롯하여 각지에서 많은 독자들이 끝없이 찾아오는 인간사랑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보내오고있다.

본사기자 리건일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수리야람시대리대사 연회 마련

다음으로 박의춘의무상이 연설하였다.

그는 수리야의 빛들이 해마다 광명성절을 우리 인민과 함께 경축하고있다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표시로 된다고 말하였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은 주체의 우리 조국, 백두산대구의 영성이시며 진보적인류가 한결같이 우러르는 자주시대의 영원한 대양이시라고 강조하였다.

경연하는 김정은원수님에 의하여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사상과 위업이 빛나게 계승발전

중중문화협조에 관한 협정조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체결 55돐에 즈음한 연회 진행

민중화국 특명전권대사와 대사관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중국 손님들이 초대되었다. 김성중 대사외 문화협약위원회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명도자이신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습근평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인민과 수리야인민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참가자들은 경연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존경하는 습근평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조선인민과 수리야인민사이의 친선단결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꽃피는 미풍, 아름다운 생활

이란방문 외무성대표단 출발

이란을 방문하기 위해 리경성부상을 단장으로 하는 외무성대표단이 20일 평양을 출발하였다.

광명성절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 이 떠났다

리영수를 단장으로 하는 광명성절경축 재일조선인예술단이 20일 비행기로 평양을 떠나갔다.

중 국 외 교 부 대 표 단 귀 국

류진민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중국외교부대표단이 20일 귀국하였다.

재 중 동 포 대 표 단 들 이 떠 나 갔 다

재 중 동 포 대표단들이 20일 평양을 떠나갔다. 평양에서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이 전송하였다.

이 에 앞서 김백룡회계부 단 장으 로 하 는 중 국 단 동 시 조 선 조 국 계 문 화 교 류 협 회 대 표 단 이 들어 갔 다.

[조선중앙통신]

